

# “절박한 이야기 귀 기울여요”...죽음 결심 막는 최후 보루

르포-광주자살예방센터 24시간 동행 취재

극단 선택 관련 하루 평균 전화 40건...가족에게도 말 못한 사연 털어나 “들어줘 고맙다” 말하기도...“고립된 사람들 사회 연결하는 끈 되고 싶어”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덕분에 오늘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지난 15일 오후 1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건 50대 남성 A씨의 울먹임이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직원 박모씨는 “A씨는 우울 증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12년째 사회에서 고립돼 혼자 살고 있다”며 “처음 10분간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시비를 걸지만, 항상 마지막엔 사람이 그렇다고 울면서 전화를 끊는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15일 하루동안 머문 광주광역시건강강박센터 부설 광주자살예방센터에는 2개의 상담실이 있었다. 상담실에는 위기개입팀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광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걸려오는 전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자살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경찰, 소방 등은 자살 관련 신고·사고 정보를 광주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자살예방센터에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거나 시도한다는 전화가 하루 평균 40건씩 걸려온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점심시간 무렵 한 여성이 “지금 당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4년째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씨는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에 눈을 질끈 감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이 여성은 최근 수술을 받고 당뇨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중, ‘우울해하는 엄마 모습이 보기 싫다’는 자녀의 말에 충동적으로 “죽고 싶다”며 전화를 한 것이다.

박씨는 “말도 엄마가 걱정돼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하루종일 전화받을 수 있으니 힘든 시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세요”라고 말했다. 수십 분 통화 끝에 이 여성은 “덕분에 마음이 진정됐다. 정말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다.

센터 직원들은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립돼 있어 속내를 털어놓을 가족과 친구가 없다”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웃어보였다.

40대 여성 B씨는 10대 아들과 싸우다 분을 사이지 못하고 오후 8시께 센터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 여성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진정제를 먹고, 흥미를 숨긴 뒤 방에 들어왔다”며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일단 한숨 자겠다”고 흥분상태로 전화했다.

10년차 센터 직원 서모씨는 “B씨와 그녀의 자녀 한명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3년 전부터 100건 넘게 상담을 하고 자살 소동을 벌여 실제 출동한 경우도 3번이나 있다”며 “우리 직원들이 끊임 없이 상담해, 지금은 약을 꾸준히 먹고 있어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기도 했다.

50대 여성 C씨가 저녁에 술을 먹고 “마스크로 눈을 가리고 20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센터에 전



광주자살예방센터 위기개입팀 직원들이 지난 15일 1577-0199로 걸려온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50대 여성을 응급입원시키고 있는 모습.



화를 했다. 결국 경찰과 센터 직원이 출동했고 C씨를 응급입원시켰다.

2년차 센터 직원 김모씨는 “이분도 혼자 살며 세상과 떨어져 외로움에 전화를 했다”며 “술에 너무 취했고, 실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한 적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응급입원을 시켰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아쉬워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한 20대 남성 D씨도 아내를 때린 뒤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벌여 센터직원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먼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D씨를 붙잡았지만, D씨는 상담도 거부하고 자신의 몸을 때리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센터 직원은 D씨만을 돌보는 것은 아니었다. 곁에 질려 떨고 있는 D씨의 아내와 상담을 해 대처법을 알려 주고 각종 센터를 연결해줬다.

D씨 아내는 “다른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이 구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런 센터가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연락했을 텐데”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루가 지난 16일 아침 7시, 교대를 앞둔 시간 40대 남성이 센터로 전화를 걸어왔다. 정신질환이 있는 이 남성은 “오늘도 카페 가서 공부하고, 운동할 예정이다. 아침밥도 먹겠다”고 말했다.

2년차 직원 김모씨는 “잘했어요. 오늘 교회 잘 갔다 와서 또 전화주세요”라고 응답했다. 이 남성은 수년전부터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상태가 개선돼 사회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며 전화를 받는다”며 “세상에서 고립된 사람들을 사회로 연

결하는 끈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도연 광주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고립되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면, 감정이 풍선처럼 터져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단 5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풍선의 바람을 뺄 수 있어, 아무리 전화가 길어져도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인구 1만명당 자살률은 2020년 2.22명에서 2021년 2.60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자살예방센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12명에서 2026년까지 16명으로 늘리고, 위기상담 전화 회선도 2회선에서 2026년까지 8회선으로 늘린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글·사진=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일상화 된 외국인 마약 범죄 백주에 필로폰 타 마시고 우편 밀수

광주 검거 잇따라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해 판매하기도 하고, 음료와 함께 마약을 타 마시는 등 광주에서 외국인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17일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흡입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A(30대)씨와 B(5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밤 11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주상복합 집에서 함께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추가로 불법체류자 태국인 2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지난해 국제 우편으로 수천만원대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베트남 출신 C씨는 재판에서 징역형

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죄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9월 5700여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마약 척결” 광주경찰청 합동단속추진단 운영

29개 팀 총 159명으로 구성

광주경찰이 모든 부서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하고 최근 기승을 부리는 마약범죄 척결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인용한 광주경찰청장이 단장을 맡고, 형사·수사·정보 등 8개 과 29개 팀 총 159명으로 하는 마약 합동단속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매일 2차례 단속 추진 사항을 점검하

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모든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동원해 종합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해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단속 활동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검찰·세관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수사실무협업체’를 통해 마약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식약처와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 단속 활

동을 펼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처럼 학생 대상 유사 범죄나 모범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범죄 교육에 방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학생 학대에 학부모 성추행까지 고교 운동부 코치 벌금형 선고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을 학대하고 학대 피해자 학부모를 성추행까지 한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시 북구의 한 학교 강당에서 친구와 카트를 밀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운동부원 B군의 엉덩이를 라켓으로 때리고,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로 운동장에서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학부모들과 고깃집에서 식사하던 중 B군의 어머니를 밖으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